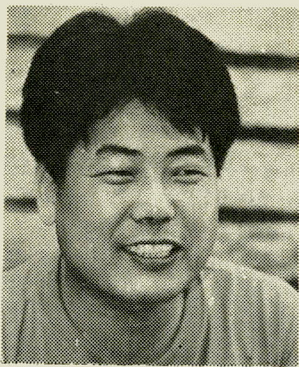


 섯소리


인간의 총량은 일정하다

윤관영(시인)

‘국립대의 공립화·민영화 방안과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총리제 신설이 추진된다. 또 오는 2천년까지 부실 사학을 우량 기업이 인수할 수 있게 하고, 1~2개 학과로 구성된 특성화 전문대와 현장학습 중심의 신대학을 설립한다’는 중장기 교육발전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한편으로 수급이 가면서라도 지극히 열려있는 바가 없지 않다.

오래 전에 재수생들의 모습을 그린 ‘광화문통 아이들’이란 영화가 있었다. 그만큼 재수생의 모습속에 미친 현 사회의 암영이 있었던 것이다. 노랑진에 있는 단과 학원에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지금의 재수생들은 밝은 모습이 거의 없다. 물론 나이가 주는 순간의 밝음은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복수지원으로 인한 완벽한 패배감이 알게 모르게 깃들여 있는 것이다. 자존할 건덕지가 없음에서 오는 지독한 열패감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이다. 그럼 이들의 장래는?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하고 있다. 인 천만 하더라도 반에서 15등 안에 들지 못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못 한다는게 정설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찌 되는가? 아예 미리감치 쓴맛을 보고 전혀 기겁지 않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무슨 신이 나겠으며, 얼마나 성실한 학업이 이루어 지겠는가. 고개가 흔들려 진다.

그런데, 무척이나 신기한 일은 아이들의 총량은 일정하거나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그리 같은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밝지가 않다. 공부 좀 쳐지는 아이들은 그리 밝고 맑을 수가 없다. 시험 점수가 좀 안좋게 나와도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여전히 밝고 기운찬 모습을 보면, 역시 사람이란 좋은 모습을 다 가질 수는 없는가보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럼 이들의 밝음은 어떻게 발현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싹 죽게 만들어야 하는가. 여기가 고민의 접점이다.

‘국립대 공립-민영화 추진’ 방안을 보면서 일단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은 두 가지다.

재벌이 교육에도 손을 대면서 교육이 경제 논리 위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그것이고, 그나마 복수지원으로 인해 보완된 경쟁의 입시가 구멍나면서 나올 소의 계층의 감정적 적대가 그것이다.

공부가 좀 떨어져도 분명한 사회의 일원이며 사회에 적응해 나가야 할 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적으로 볼 때 인적자원이 총량인 것이고, 이 총량이 잘 발현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열패감을 가지고 마치 못해 사회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 본성에 맞는 훈련을 통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한다. 공부를 잘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다 안 되면 공장이나 보내지 뭐.’ 하는 부모의 논리도 그렇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교육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

어설프나마 내가 생각한 대안은 이렇다. 아예 고등학교 졸업후 억지로 빠지는 통로를 현실화 해 미리 준비해 들어가는 것이다. 예를들면, 장사에 기질이 있는 녀석들은 소 경영을 미리 배울 수 있는 중·고 농사에 관심이 있는 녀석들은 농사를 배울 수 있는 중·고, 바둑에 취미가 있는 녀석은 바둑을 배울 수 있는 중·고, 문학에 관심이 있는 녀석은 미리감치 문학을 배울 수 있는 중·고, 전기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녀석들은 전기를 배울 수 있는 중·고, 운동에 관심이 있는 녀석들은 분야별로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중·고, 예능에 취미를 가진 녀석들은 각 부문별로 예능을 배울 수 있는 중·고 등등을 다변화 시키고 그곳을 토대로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문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학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미적분을 가지고 싸움하느니 아예 제2외국어를 하는 게 낫듯이 본성에 맞는 통로를 열어 저마다 가진 본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 그래야 인간의 에너지 총량이 사장되지 않고 발현될 수 있으며, 그럴 때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꼴이 될 것이다.